

막 오른 '호남대전'... "한 표라도 더" 막판 총력전

영광·곡성군수 오늘부터 사전투표
민주·혁신·진보당, 영광서 유세
이재명 "전선 흐트러져선 안돼"
조국 "호남 정치 균형·견제 필요"
김재연 "농어민 위한 진심 중요"

10·16 영광·곡성군수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각 정당과 후보들이 '호남대전'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이번 재보선에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영광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가 초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3당 대표들이 총출동해 막판 표심잡기에 나섰다.

지난 9일부터 민주당 장세일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1박 2일 집중유세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 영광군청 사거리 주변

상가 등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장세일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터미널사거리 유세에서 "윤정권이 들어서고 경제·민생·외교·안보 대체 좋아지는 게 뭐가 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경고하고 심판했지만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제 2차 심판을 해야 한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혁신당·진보당 등으로) 심판 전선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어제 여론조사에서 장세일 후보가 2등으로 밀렸는데, 결국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길 것"이라고 읊소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친 뒤 영광에 복귀해 터미널·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펼쳤다. 이후 영광군 어민회와 성심원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장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일찍이 '호남 한달살이' '꼭다방' 등 공격적인 유세를 펼쳐온 혁신당도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었다.

조 대표는 "정치에서는 경쟁이 필요하며, 지금은 새로운 일꾼을 선택할 때"라며 "호남에서 민주당이 오랫동안 집권하며 지역 정치를 지배해왔다. 이제 지역 발전과 정치를 위해서는 민주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호남 정치에도 균형·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4시 30분 영광중앙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강행군을 시작했다. 이어 우산근린공원과 터미널사거리 등 골목을 다니며 이석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독려했다. 여기에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쌀생산자회·농업마이스터협회 등 각지 시민단체도 이 후보 지지회견을 열고 힘을 보탤었다.

김재연 대표는 "군민들 모두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누가 진짜 민생을 잘 챙길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길 바란다"며 "농어민의 삶 제대로 아는 정당은 진보당 뿐이다. 실력과 진심이 중요하다."

진보당과 이석하의 실력의 원천은 군민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3당 대표가 집결한 '호남대전'이 펼쳐지면서 선거 열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날 영광터미널 인근은 선거 유세를 위해 나온 운동원들로 가득했다. 파랑·노랑·민트·남색 등의 유니폼을 입은 이들은 연신 자신의 후보송에 맞춰 춤을 추거나 기호·이름을 연호했다.

주민들의 표심이 엇갈렸다. 터미널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박옥순(82)씨는 "80년 인생 동안 군수선거 한다 고 당 대표가 모조리 내려온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 지역에 활기가 돈다"며 "하도 (선거가) 치열하다고 해 나다 찾아왔다. 매번 민주당만 찍었는데,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참 괜찮아 보인다. 정권심판 이런 말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어촌 종사자 50대 최모씨는 "요즘 쌀도 싸이지만 앞서 후쿠시마 원전수방류 이슈로 한때 어촌계 상황이 좋지 않았다"며 "촌에서는 정부나 중앙에 힘을 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사람이 많아야 목소리도 크지 않겠나. 미우나고우나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농민 김상현씨는 "군수에 출마한 민주당과 혁신당은 서로 고소고발전을 하는 등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진보당 후보는 농민회 시절 깔깔아주기 운동 등 지역 봉사를 꾸준히 해 왔다. 선거 과정에서도 이석 유세를 하고 있다. 진정성에서 울림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사전투표는 11~12일 이틀간 진행된다. 선거권을 가진 주민은 누구든지 오전 6시~오후 6시 사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할 수 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 하세월"

양부남, 정부에 시행령 개정 촉구
"기타지원금 지원대상서 제외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 을)은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아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양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보상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5·18 당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생겼지만, 시행령이 해당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5·18보상법이 지난 2021년 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

련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타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이 지난 2006년 개정된 이후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성폭력 피해자들이 기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시행령은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돼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기타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한정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양 의원은 "국감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광주시와 전남도 국감에서는 기타지원금 이외 보상금 문제도 철저히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아트광주24 호남 최대 미술시장인 '아트광주24'가 10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시민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국내·외 106개 갤러리가 참여하고 '청년작가 발굴·라이징스타전' 등 7개 특별전 등 총 113개의 부스가 마련된 이번 전시는 오는 13일까지 열린다. 김양배 기자

제30회 녹색환경대상 공모

환경지킴이를 찾습니다

- 공모부문**
 - 생활속 환경실천** 일선 생활현장에서 환경보전 및 기후위기 개선에 노력한 개인·단체
 - 자연 환경보전** 바다 및 강(도랑 포함), 먹는 물, 미세먼지, 대기, 폐기물 등 관련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개인·단체
 - 환경교육** 환경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의식 제고에 기여한 개인·단체
 - 서한태환경상** 지역 환경운동의 선구적인 역할과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기여한 개인·단체
 - 시 상**
 - 종합대상 (환경부장관상)**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부문별 대상** 상패 및 상금 300만원 (개인은 200만원)
 - 서한태환경상**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공모대상** 해당 분야에서 묵묵히 노력해온 사·도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환경단체, 공직자, 학교, 기업체 등 자격제한 없음
 - 제출서류**
 - 개인 인적사항 (법인은 연혁·등기부등본) 1부**
 - 공적조서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www.jnilbo.com) 1부**
 - 공적 증빙 자료·사진 각 5부**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공적조서를 제외한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접수기간** 10월 7일 (월) ~ 11월 15일 (금)
- 수상자발표** 12월 2일 (월) 전남일보 게재
- 시 상 식** 12월 11일 (수) 예정
- 접수·문의** 우편접수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 6층 사업본부
전화 (062) 519-0730
팩스 (062) 510-0436

- 주최: 광주은행 全南日報
- 주관: 전일엔시스
- 후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